

1919년 결성 ‘대한여자애국단’ 광주학생독립운동 후원했다

전남대 김재기 교수팀, 1930년 2월 20일자 신한민보 공개
150달러 후원(현 가치 5000만원) 찬반 묻는 공문 게재
美에 본부 둔 교포단체, 안창호 선생 부인 등 150명 활동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뒀던 교포 여성들의 단체인 ‘대한여자애국단’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현재 가치로 약 5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 내용이 발굴됐다.

전남대학교 김재기(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은 3·1운동 102주년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이 실린 1930년 2월 20일자 신한민보를 최근 공개했다.

신문에 게재된 공문에서 대한여자애국단은 “금번 내지학생운동(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만세운동을 계승한) 제2차 독립운동이다”고 규정하며, 공통받고 있는 광주학생들을 비롯한 조선의 학생들을 대한여자애국단이 후원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여자애국단 본부는 “우리의 어린 자녀와 동생들은 죽음을 초개같이 보고 오직 민족의 광명을 위해 급전직하의 형세로 적을 대항하는데 어찌 우리는 방관의 태도를 가지고 평안히 앉아 있으리오”라며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여자애국단은 “특별회의를 열어 토의한 결과 일치 가결로 본 여자애국단의 저금 중에 150불을 지출하기로 한 바, 이에 귀 지방 단원들의 가부를 묻고자 공문하오니 귀 단장은 귀 단원들의 가부를 신속히 거두어 보내주시름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미국 전역의 지부단장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내용으로 봐서 대한여자애국단은 재정 중 에 일정 금액을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으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특별후원금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로 보내지기도 했고, 경제력이 없는 북미한인유학생 회의가 영문으로 독립운동을 홍보하는 후원 비용으로도 지원됐다. 대한여자애국단원들은 대한인국민회가 1930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최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대회에도 참여해 특별후원금을 냈다. 단원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지원하려했던



1930년 2월 20일자 신한민보에 실린 대한여자애국단 공문.

150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당시 보안상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기록은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여자애국단은 1919년 3·1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1919년 8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다뉴바(Dinuba)에서 ‘가정의 일용품들을 절약해 독립운동 후원금을 마련하고 국내 동포의 구제 사업에 노력하며, 일화(日貨)를 배척하고 부인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구성원들은 안창호 선생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를 비롯한 유학생의 부인들과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등 15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여자애국단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4만 6000달러를 대한인국민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정부는 그 공을 인정해 단원 18명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김재기 전남대 교수는 “대한여자애국단원들은 바느질과 지수, 세탁 등을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후원했다”며 “이제라도 대한여자애국단과 100여명의 회원을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단체와 참여자로 새롭게 분류해 기록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컨텐츠에 전시해 그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봄이 내린다

봄비가 내린 1일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에 노랗게 피어난 산수유 꽃 사이로 우산을 쓴 상춘객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고용부 K-Move스쿨 ‘우수’ 선정

광주·전남 대학교 유일

조선대가 올해 해외취업 연수과정인 ‘K-Move 스쿨’ 일반과정 6년 선정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우수과정으로까지 뽑히면서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 핵심사업인 K-Move스쿨은 외국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구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통해 직무 역량 및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 해외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 후 미국 등 해외 취업과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기를 맞았다.

올해 진행되는 K-Move스쿨에서 조선대는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 6기’가 우수과정으로, 신규로 개설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1기가 일반과정으로 선정됐다.

특히 기존 일반과정이었던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이 주관 기관에서 ‘우수과정’으로 선정됐으며, 광주·전남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조선대가 K-Move스쿨 ‘우수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채희종 기자 chae@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 의·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만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종합체육관’ 착공

광주시 북구가 지역민들의 문화적 감동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 전문시설인 ‘북구종합체육관’의 착공식을 갖는다.

1일 북구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북구종합체육관 착공식 개최 후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구종합체육관(연면적 4995㎡·지상 4층 규모)은 총 160억 원이 투입, 북구 연제동 1059번지 일대에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1층은 체육회사무실·스포츠카페·체력인증센터, 2층은 배드민턴장 16면·농구장 3면·탁구장 3면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된다. 3층과 4층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각종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671석의 관람석이 설치된다.

북구는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그동안 마땅한 종합체육관이 없어 광주에서 국제대회 개최 시 주민들이 타 자치구나 전남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과 체육문화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 ‘최우수’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가 정부 추진 공동연구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행한 국정연구사업 평가에서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가 융합형 산·학·병·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사업’이 총점 93.3점으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사업’은 지난 6년간(2013년 11월~2019년 10월)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고령화 시대의 심혈관계 질환과 미증족 의료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의 노하우와 의료기기 전문기업의 산업화 능력, 학계와 연구소의

융합형 임상응용 기술 등 산·학·병·연 협력연구체계를 구성한 사업이다. 연구센터는 지난 6년간 논문 163편(국내 51편, 국외 SCI 112편), 국내외 특허 등록 22건, 기술이전 6건, 임상 1상 진입 등 목표대비 1000% 이상의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장인 정명호 교수는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 연구진의 탁월한 연구역량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심장질환 치료제 개발 및 심부전증 예방을 위한 관상동맥 스텐트 제작, 손상된 심근조직의 기능 개선용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